

SOC 스톡, 1,400조원 수준 상회하나 투자 정체로 감소 추세

- 1970년 27.6조원에서 2013년 1,407.6조원 수준, 지금은 GDP 증가율보다 낮아 -

안 홍 기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최 근 SOC 스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률 및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기에 접어든 반면 복지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SOC 등 타 부문에 대한 예산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늘어나는 복지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SOC 투자와 같이 대규모의 재정이 수반되는 예산의 긴축이 필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SOC 투자 규모에 대해 이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직 우리나라의 SOC 스톡 수준은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

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SOC 스톡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SOC 스톡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우리나라 SOC 스톡의 적정 수준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SOC의 범위, SOC 스톡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게다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글은 우리나라 SOC 스톡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통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의 SOC 투자와 스톡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 글에서 의미하는 SOC의 정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SOC라는 용어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

인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지만¹⁾ 우리나라의 경우 SOC라는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SOC라는 용어는 정의에 따라 범위가 다양할 수 있지만 대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교통 부문, 댐·하천 제방·상하수도 등의 수자원 부문, 도시 개발, 통신, 에너지 부문 등 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생산 기반시설을 지칭하는 데에 주로 쓰이며, 이는 산업 분류 중 토목건설 부문의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기반시설도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SOC 스톡 수준의 적정성 등의 논란이 되는 SOC의 범위는 교통 기반시설이나 댐, 원전²⁾ 등 국가가 공급 주체인 일부 기반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글은 '통계로 보는 한국 건설 70년'이라는 특집 주제의 일부로서 이 글에서 SOC는 건설부문에서 공급하는 기반시설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SOC 투자 및 SOC 스톡은 건설부문 중 건축부문을 제외한 토목건설에 해당하는 구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SOC 스톡은 물량 스톡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화폐 가치로도 파악할 수도 있다. 물량 스톡 기준의 평가 방법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시설 연장(도로 연장, 철도 연장), 시설 용량(항만, 공항의 처리 능력), 시설 면적(산업단지 면적) 등의 물리적 측면에서 평가한 SOC 시설의 양적 규모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화폐 가치 기준의 평가 방법은 물량 스톡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보통 자본 스톡 추계시 SOC 스톡은 구축물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된다. SOC 스톡은 측정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지

만³⁾ 이 글에서는 SOC 시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장기 시계열 스톡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화폐 가치로 평가한 SOC 스톡을 기준으로 하였다.

건설투자로 살펴본 SOC 투자 추이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규모는 1953년 약 1조원(2010년 가격 기준)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199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 13.2조원에서 2000년에는 161.9조원에 이르러 약 30년 기간 중 12.3배로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건설투자 규모는 2008년에는 208.2조원으로 정점을 이룬 후에 건설경기 하강 등으로 2014년 현재 198.4조원으로 다소 감소한 상태이다.

이 기간 중 SOC(토목 건설) 투자의 경우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70~1990년대 고속 성장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 약 5조원 수준의 SOC(토목 건설) 투자가 2000년에는 80.2조원으로 약 16배 증가하였다. 특히, 1993년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이후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복지 예산의 증가 등에 따라 SOC 투자도 건설투자 추이와 마찬가지로 정체 상태에 있고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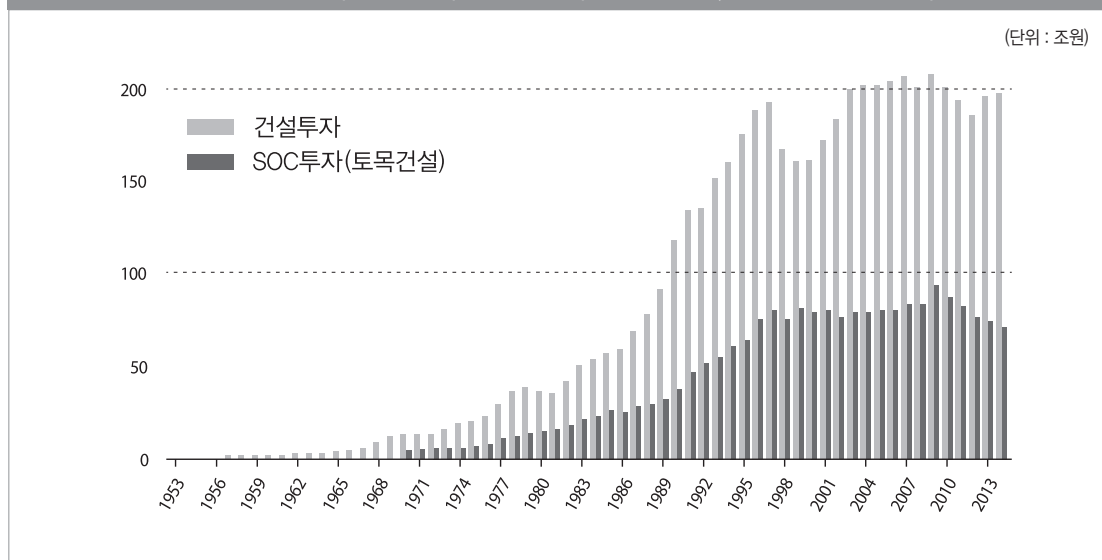
그런데 SOC 투자는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과 함께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따라서 전체적인 SOC 투자 추이는 국가 경제 성장 패턴과 유사하

1) 사회간접자본의 용어에 대한 정의, 기능, 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홍성웅(2006, 2)의 「사회간접자본의 경제학」, pp.20~32를 참조.

2) 댐, 원전의 경우 규모의 적정성 문제보다는 환경 파괴, 방사능 위험 등에 의한 것으로 공급 방법에 관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음.

3) SOC 스톡의 평가 방법 및 장단점에 관한 논의는 안홍기·윤성민(2012, 8)의 「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 조사 연구」, pp.7~15를 참조.

우리나라 SOC(토목 건설) 투자 추이(1970~2014, 2010년 가격 기준)



지만 예를 들어 1997년 IMF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건설투자는 감소하였지만 SOC(토목 건설) 투자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건설자산으로 살펴본 SOC 스톡 추이

우리나라의 SOC 스톡에 관한 자료로는 과거 통계청의 「국부통계조사」가 있다.⁴⁾ 그런데 통계청의 「국부통계조사」는 1968년 이후 10년 주기로 4차례에 걸쳐 직접 조사에 의해 작성된 바 있으나, 1997년 조사 이후에는 간접 추계로 작성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국부 통계가 「국가자산통계」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는 다시 2014년 「국민대차대조표」로 변경되었다. 여기에서는 국민대차대조표의 비금융

생산자산 중 건설자산의 일부인 토목건설 자산의 순자본 스톡⁵⁾을 SOC 스톡으로 정의하고, 1970년 이래 최근까지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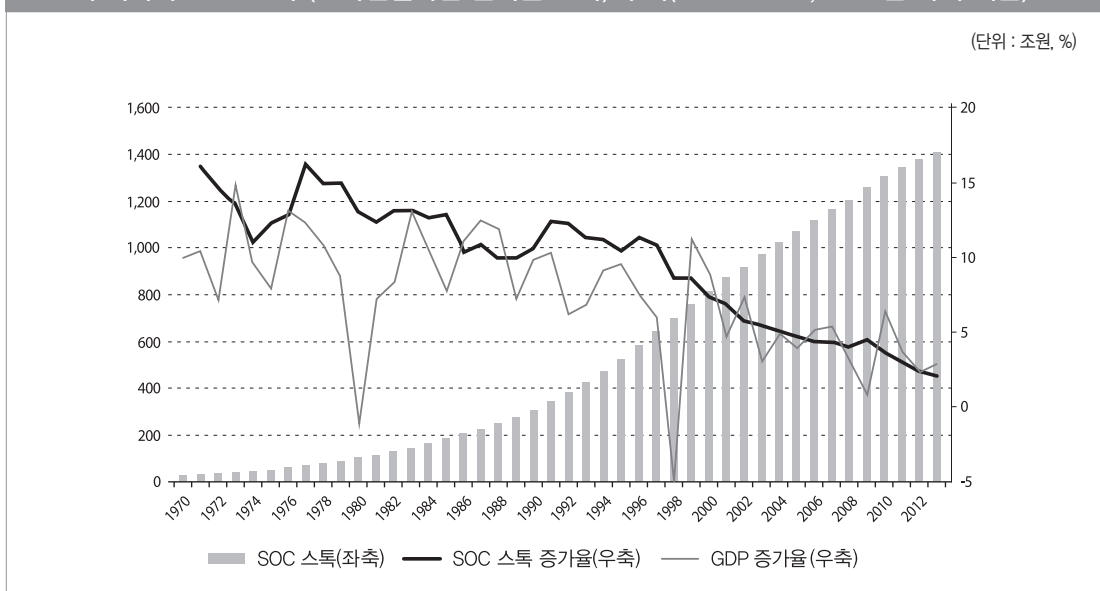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SOC 스톡은 1970년 27.6조원 수준에서 1980년 101.5조원, 1990년 303.3조원, 2000년 816.1조원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현재 1,407.6조원에 이른다. 동 기간의 SOC 스톡 증가율을 살펴보면 1970년 이래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10%를 넘는 높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동 기간의 경제 성장률(GDP 증가율)을 상회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SOC 투자 추이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투자 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 혹은 감소함에 따라 SOC 스톡 역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현

4) 이 외에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한 추계 자료가 있으나, 이 글에서의 SOC 스톡 범위와 상이하거나 추계 자료의 시기에 각각 차이를 보이는 등 1970년 이래 최근까지를 포함하는 장기 시계열 자료는 없는 실정임.

5) 순자본 스톡은 과거에 투자한 자본재 중 추계 시점 현재 잔존하는 자산을 현재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스톡(富의 스톡)으로 대차대조표에 기록됨.

우리나라 SOC 스톡 (토목건설자산 순자본 스톡) 추이(1970~2013, 2010년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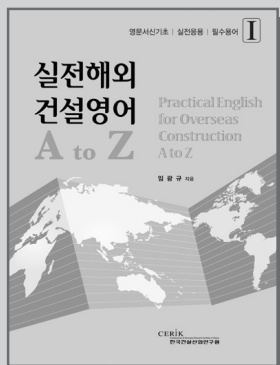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재 SOC 스톡 증가율은 2.07%로 GDP 증가율(2013년 2.9%)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더욱이 향후 정부 재정 지출에서 복지 재정 수요 등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되므로 상대적으로 SOC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SOC 스톡 역시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ERIK

도 · 서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I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 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발간하였다.

「실전해외건설영어 I」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